

# 보고도 못 믿을 연체·부실율 '0' P2P 투자 전, 한번 더 확인해야

사기 수사업체들 고의조작 의혹  
투자 자금, 타상품 상환금 조작 등  
공시 강화로 위험요인 차단해야

#. 6개월 전 P2P투자를 시작한 A씨.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연체율 0%, 부실률 0%를 보고 확신이 들어 조금씩 모아왔던 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잠적하면서 연체율과 부실률마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A씨는 대체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P2P(개인 간)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P2P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

하며 명확하게 공시토록 했음에도 업계 내에선 별다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들 대부분이 연체율과 부실률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일 부도 처리된 헤라펀딩을 제외하고 오리펀드, 더하이원 펀딩, 아나리츠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3곳 모두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기록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다른 상품 상환금을 갚으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계속 0%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부실채권(NPL)처리,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채권매각을 통해 연체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눈속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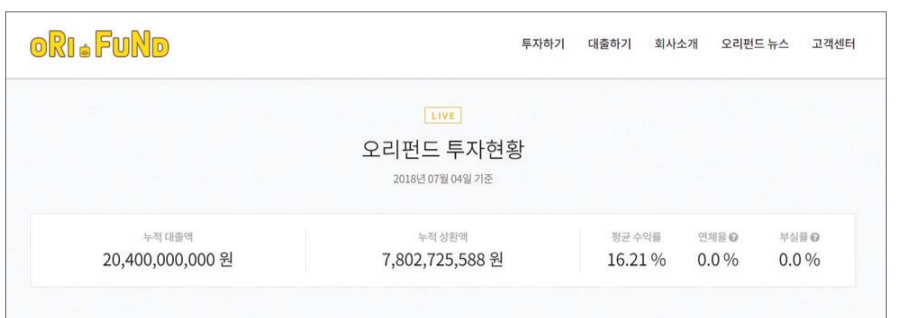
이어 그는 "투자자들이 투자 전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수익률이다"며 "이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률을

삭제하고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클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업체 37개 중 13개사 표시되어 있고, 24개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 부실률 표시가 투자자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발생될 확률이 있는 업체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연체율과 부실률의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상품별 연체율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건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P2P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을 분류해 유형별로 연체율과 부실률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제재가 없어 P2P업체 내부의 자정작용이 없다면 투자자는 또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연체율과 부



대표의 잠적으로 수사중인 오리펀드 홈페이지에는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게시돼있다.

/오리펀드 홈페이지 캡처



자금돌려막기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아나리츠 홈페이지, 연체율과 부실률이 0%로 게시돼있다.

/아나리츠 홈페이지 캡처

실률을 고의로 조작하면 투자자들은 올바른 P2P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연체율과 부실률이 0% 업체는 투자 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업체들로 P2P업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며 한 공간에 모든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P2P 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 신용리스크 한번에...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신용위험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목적의 기존 신용위험가중자산산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내부 관리 목적으로 그룹 통합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및 통합위험상황분석시스템을 확대 구축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BIS 비율 산출 시 제도적으로 제외됐던 보험회사(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까지 포함해 그룹 공통 기준으로 신용리스크 내부자본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룹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스

트레스 위험량을 산출하고 BIS 비율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위험상황분석시스템도 구축 완료했다.

농협금융은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회사별, 자산별 리스크 대비 수익성 평가방법을 더욱 정교화 하고,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상황분석을 실시해 취약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허충희 리스크관리부부장(CRO)은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2022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통합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농협금융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수익성을 더욱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6개월 숨가쁘게 달렸다... 하반기도 매진을”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전국 소통경영

영업점·지역영업본부 등 순방  
보성군 호우피해 현장도 방문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지난 3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과의 소통경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장경영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이 행장은 영업점과 지역영업본부를 순방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상반기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에서 진행된 '2018 하반기 현장경영'에 참석한 이 행장은 지난 6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지난 3일 현장경영으로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를 방문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부했다.

이 행장은 "사업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주민과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행장은 이에 앞서 전남 보성군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상황

을 살피고,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농협은행은 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 최대 1.6%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외화예금, KB와 함께라면 OK!”

### KB국민은행 신규가입 이벤트

KB국민은행은 9월 말까지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과 'KB모바일 외화예금', 'KB국민업(UP)외화정기예금'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외화예금~KB와 함께라면 OK! 신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외화입출금 및 해외주식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기간 중 영업점 및 모바일을 통해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외화로 입·출금 시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8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KB모바일 외화예금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가입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이 외화로 입·출금 시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5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업외화정기예금은 1개월 단위



로 금리를 운용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된 이율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외화정기예금이다. 이벤트 기간 중 신규 입금 시 50% 환율 우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 가입 고객에게 해외주식거래, 자산보유실적 등에 따라 모바일 커피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KB모바일 외화예금과 KB국민UP의 화정기예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각각 모바일 커피상품권과 아이스크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TM 보험대리점 계약건수 7.7% ↑ 초회보험료는 '207억 원' 5.9% ↓

텔레마케팅(TM) 보험대리점의 계약건수는 늘었지만 초회보험료는 다소 줄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개 TM보험대리점의 신계약 건수는 61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전체 보험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초회보험료는 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17)의 영향으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줄었다.

상품별 판매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112억원, 95억원이다. 핸드폰 등 전화를 통한 판매에 적합하

고,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 유인이 높은 소액 보험료(평균 3만2000원) 위주의 상해·질병, 암, 운전자 등 보장성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는 각각 14억원(6.5%), 3000건(0.5%)에 그쳤다.

판매채널별로는 흡소핑사의 초회보험료가 78억원(3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사는 58억원(28.5%), TM전문대리점은 41억원(19.8%)을 기록했다.

신계약 건수 기준도 흡소핑사가 24만3000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카드사(18만2000건), TM전문 보험대리점(12만5000건) 순이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 서비스품질지수 '1위'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에서 5년 연속 은행부문 1위(누적 17회)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로서 지난 200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고객만족도 조사다.

특히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객별 맞춤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의 고객지향성, 전문성 등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펼친 점과 디지털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고객중심의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